

2018.4.7 소방직 한국사 복원문제

*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1. 사료에서 제시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은?

왕비는 혼란을 틈타 무관 홍재희의 도움으로 장호원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가장 든든한 조연자를 잃은 고종은 고심 끝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불러들였다. 9년만에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선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왕비의 국상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왕비의 시신을 찾기는 커녕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여서 대신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흥선대원군은 시신대신 왕비의 옷으로 장례를 진행한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중궁전(中宮殿)이 오늘 오시(午時)에 승하(昇遐)하였다. 거애(擧哀)하는 절차는 규례대로 마련하고 망곡처(望哭處)는 명정전(明政殿) 뜰로 하라."고 기록되어있다

- ① 단발령 시행으로 유생들의 반발이 심화되었다.
- ② 청에서 군사고문 뮐렌도르프를 파견하였다.
- ③ 일본과 한성조약이 맺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청·일 양국 군대가 철수하였다.

문제2. 사료에서 제시한 시대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질고 글 읽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하지만 그는 몹시 가난하여 환곡을 타 먹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 천 섬의 빚을 지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때마침 그 동네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가족끼리 회의를 열어 말하였다. “이제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서 곤란한 모양이니 그 양반 자리를 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회에 내가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이 어떨까?”

- ① 소소한 분청사기가 만들어졌다.
- ② 서민문화인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 ③ 벽사나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민화가 유행했다.
- ④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진경산수화가 발달했다.

문제3. 다음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정여립 모반사건 - 인조반정 - 예송논쟁 - 갑술환국
- ② 인조반정 - 예송논쟁 - 정여립 모반사건 - 갑술환국
- ③ 갑술환국 - 예송논쟁 - 정여립 모반사건 - 인조반정
- ④ 예송논쟁 - 갑술환국 - 정여립 모반사건 - 인조반정

문제4. 다음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장수왕 평양천도 - 지증왕 우산국 정벌 - 성왕 사비천도(남부여) - 진흥왕 대가야 정복
- ② 성왕 사비천도(남부여) - 진흥왕 대가야 정복 - 장수왕 평양천도 - 지증왕 우산국 정벌
- ③ 진흥왕 대가야 정복 - 장수왕 평양천도 - 성왕 사비천도(남부여) - 지증왕 우산국 정벌
- ④ 지증왕 우산국 정벌 - 장수왕 평양천도 - 성왕 사비천도(남부여) - 장수왕 평양천도

문제5. 다음 사료의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질 수 없어 마치 한 물건과 같다. 그러나 그 다른 바는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으며, 이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형체도 없고 작용도 없지만 형체도 있고 작용도 있는 것을 주인이 되는 것이다. 형체와 작용이 있지만, 형체와 작용이 없는 것의 그릇이 되는 것이 기다.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며, 이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가 드러나면 이가 타는 것이다. 이가 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라는 것은 본말과 선후가 없다는 말이다. 본말도 없고 선후도 없기 때문에 사물과 감응하지 않아도 선이 아니며 이미 감응하여도 후가 아니다.

- ①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다.
- ② 동호문답, 수미법, 만언봉사를 저술하였으며, 통치체제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 ③ 이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 ④ 성학십도를 저술하였고, 이기호발설과 경을 강조하였다.

문제6. 고조선은 청동기시기에 등장하였다. 이 시대 유물로 맞는 것은?

ㄱ-반달돌칼, ㄴ-슴베찌르개, ㄷ-탁자식 고인돌, ㄹ-조개껍데기 가면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문제7. 사료에서 제시한 시대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헌병제를 폐지하고 모두 일반 경찰들로 바꾸었다고 하나 경찰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한마디로 이름과 복식만 교체하고 조선 국민들에 대한 억압과 감시는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었다. 언론 활동도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결과 현재도 남아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간행되고 조선 사람들의 문화 활동도 꽤나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일제가 조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회유하기 위하여 보여주기식으로 한 것들에 불과했다.

- ① 기미독립선언서
- ② 창씨개명, 강제노동
- ③ 헌병경찰통치
- ④ 신문은 있었으나 검열, 삭제로 백지상태로 만들었다.

문제8.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삼국유사는 신라중심으로 서술되었다.
- ② 삼국유사는 단군신화를 쓰지 않았다.
- ③ 제왕운기는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④ 제왕운기 내용 중 상권은 우리나라, 하권은 중국이다.

문제9. 사료의 내용이 제기된 시대상황으로 옳은 것은?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치국(治國)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지극히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①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 ② 지방행정 체제인 9주5소경이 완비되었다.
- ③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④ 후주에서 온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문제10. 사료의 내용과 관련된 보기 중 틀린 것은?

삼국시대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시대 유민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 선진 기술을 전해주어 야마토 정권 및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① 고구려 - 쇼토쿠태자의 스승 혜자
- ② 백제 - 아직기 한자 전파
- ③ 신라 - 노리사치계 불교전파
- ④ 가야 - 스에키토기에 영향

문제11.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올바른 것은?

(가)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는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조선국은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 한다.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하므로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나)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과세 표준은 종가세로 한다.
·만일 조선국이 자연 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하게 한다.

- ① 조선시찰단과 영선사를 파견했다.
- ② 급진개화파가 우정국 개국축하연에 정변을 일으켰다.
- ③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통상수교거부의지를 알렸다.
- ④ 조선에 일본의 군대가 주둔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문제12.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올바른 것은?**

(가)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부정 선거를 추진하였다.
(나)장면 내각이 사회 혼란과 무질서 상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신·구파 간 파벌 싸움으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군부세력은 사회혼란을 구실로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 ①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실시하였다.
- ②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실시하였다.
- ③ 3선 개헌을 통해 유신헌법을 마련하였다.
- ④ 7년 단임제와 단원제를 실시하였다.

문제13.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는 서재필·윤치호의 지도 아래 토론회와 강연회를 통해 일반 민중들을 새로운 지식과 교양으로 적극 계몽하였으며 또한 국가주권의 자주화, 국가이권의 수호, 국가재정의 일원화, 국민자유권의 보장, 인사행정의 공정화, 의회식 중추원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의 6조(국정개혁안)’를 채택하고, 참가 대신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국왕의 재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왕은 ‘헌의 6조’를 재가함과 동시에 서정쇄신을 다짐하는 조칙 5조를 반포하였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관선 25명, 민선 25명의 의석을 규정한 근대의회 성격의 지닌 ‘중추원관제’가 반포되었다.

- ① 만민공동회를 개최 하였다.
- ② 영남 만민소를 주도하였다.
- ③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거부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문제14. 다음 나열된 시기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모스크바3상회의 -(①)- 정읍발언 -(②)- UN소총회 -(③)- 제헌헌법 -(④)- 여수 10·19사건

- ①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② 남·북협상을 시도하였다.
- ③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④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문제15. 사료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① 형평운동(형평사)
- ② 실력양성운동
- ③ 민족 유일당 운동
- ④ 문맹 퇴치운동

문제16. 사료에서 제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5년 민족 유일당의 건설을 목표로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한독립당, 의열단이 모여 중국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족혁명당은 기타 단체들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 1938년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김원봉이 조직하여 활발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①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선전포고하였다.
- ② 조소앙의 건국강령이 발표되었다.
- ③ 중국관내최초 한인군사조직이었다.
- ④ 한민애국단 윤봉길 의거

문제17. 사료에서 제시한 사건 이후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① 3선 개헌을 단행하였다.
- ②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다.
-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였다.
- ④ 한국식 민주주의를 반대하였다.

문제18.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살이 썩으면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무덤인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나)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부족장인 대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리며 독자적으로 주민과 영역을 다스렸다.

- ① 가 - 왕은 없고 신지, 읍차라 불리는 군장이 다스렸다.
- ② 가 -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분리된 제정분리사회이다.
- ③ 나 - 서옥제라는 사회풍습이 있었다.
- ④ 나 -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는데 수렵사회의 유풍을 보여준다.

문제19. 사료 중 (가)에서 있었던 일로 옳바른 것은?

(가)는 1921년 초에 안창호와 이동휘가 임시정부를 떠나고 국제연맹 위임통치사건에 따른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 등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개편과 독립운동의 방략 및 간도침범 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923년 1월 3일 국내외 135개 단체에서 158명의 대표가 참석한 회의이다.

- ① 임시정부를 개조하자는 개조파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가 맞선 회의이다.
- ②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유일당운동 전개 과정이다.
- ③ 위정척사파가 전개한 영남 만민소 운동이다
- ④ 정우회 선언과 관련된 내용이다.

문제20. 사료에서 제시한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숙종 1693년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동래의 어민 안용복 등 조선 어부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외교 분쟁이 일어났으나, 1696년 1월 에도 막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 ① 숙종 때 청과 조선의 국경선을 나타낸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 ② 대한 제국 정부가 발표한 칙령 제41호에 울릉도 군수의 관할 구역을 독도까지 명시하였다.
- ③ 평안도 지역의 지역차별로 인해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④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6두로 고정화한 영정법을 실시하였다.